



WWF

KOREA

WWF-KOREA 파트너십 연례보고서

CORPORATE PARTNERSHIPS REPORT

2023 회계연도 (2022년 7월~2023년 6월)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WWF는 110여 개국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 세계 600만 명 이상의 후원을 받고 있는 세계 최대 비영리 환경보전 기관이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WWF는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시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다.

파트너십 관련 세부 정보 안내: WWF-Korea Partnership (partnership@wwfkorea.or.kr)

발행인: 홍윤희
작성자: WWF-Korea 파트너십팀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처: WWF-Korea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Brad Josephs

발간 관련 내용: 본 보고서 전체를 복제하거나 일부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인용 표시를 참고하여 출처를 명시하고 위에 열거된 기구에 저작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본 보고서를 사용하거나 인용할 경우 아래 부분을 참조, 저작권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 Text 2023 WWF-Korea
All rights reserved



© Antonio Busiello/WWF-US

목차

WWF-KOREA 이사장 인사말	2
WWF와 기업의 협력	4
WWF와 기업의 파트너십 형태	5
보고서 소개	6
파트너십(PARTNERSHIPS)	
- 코카-콜라	10
- 한국씨티은행	12
- 아모레퍼시픽-라네즈	14
- 한솔섬유	16
- 데상트코리아	18
- 라인게임즈	20
- GENIE TV 키즈랜드	22
-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24
- 은하수산	26
- KAPP	28
지속가능한 프로그램(SUSTAINABLE PROGRAM)	32
플라스틱	
- PACT 기업 공동 선언	34
- PACT 라운드테이블	35
- IMPACT FUNDS 활동	36
팜유	
- 지속가능한 팜유 워크숍 개최	38
- 말레이시아 사바 트립	39
자선기부기업	40
파트너십 기타 활동	42
파트너사 인터뷰	48

WWF-KOREA 이사장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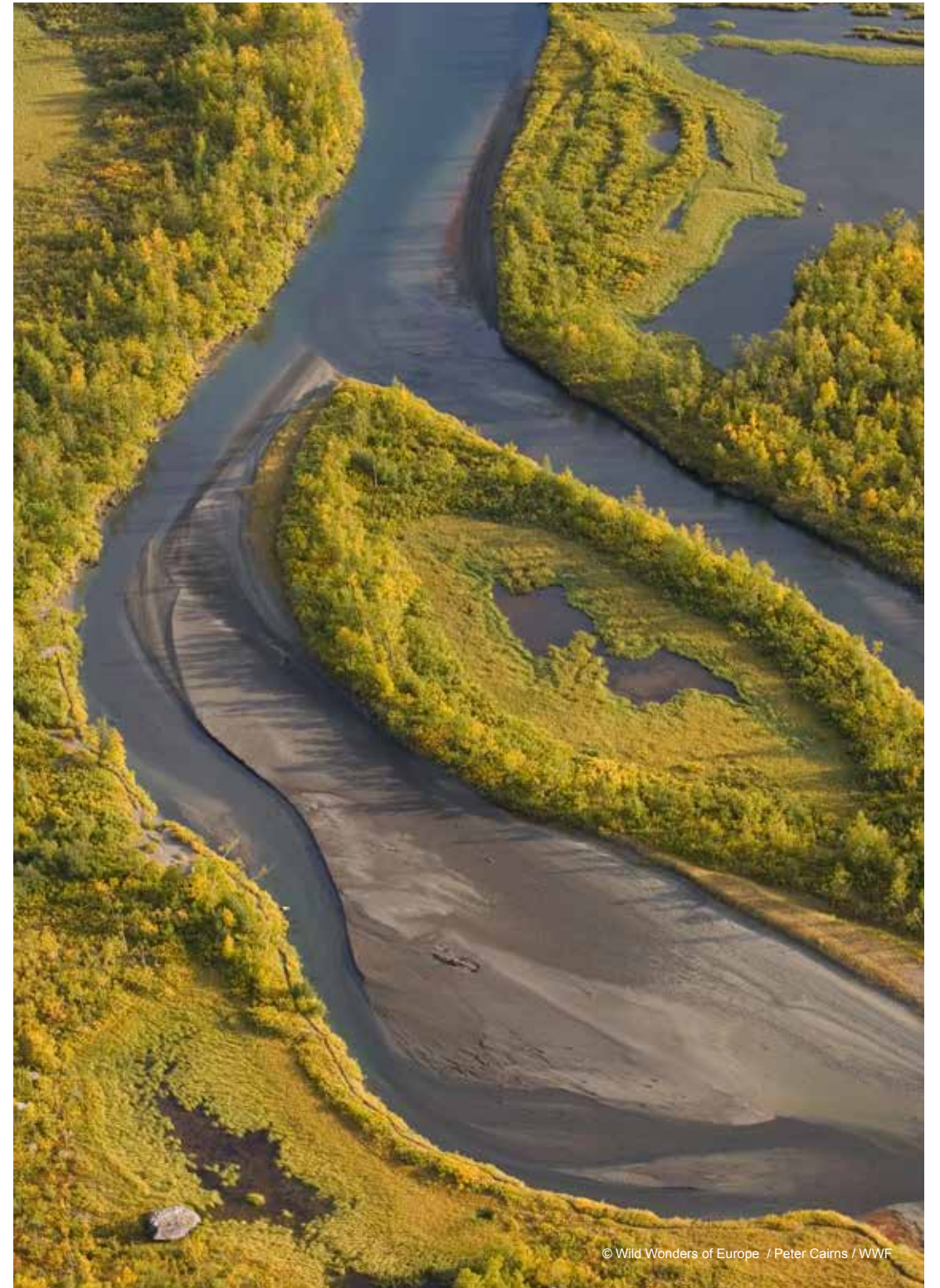
WWF-Korea
이사장
홍정욱

올 여름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이 이어지고 있으며, 유럽의 많은 도시의 날씨가 40도 이상으로 치솟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50도를 넘기며 11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폭염과 폭우 등 극단적 이상기후의 피해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변화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뿐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라는 이중의 위기(Twin Crisis)를 해결하기 위해 WWF는 지구를 공유하는 모든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주체인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WWF는 최근 기업 협력 전략을 재정비해 영향력이 큰 산업군과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WWF의 글로벌 영향력을 활용하여 국가를 넘어 국제적 협력을 이끌고 보다 규모 있는 활동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WWF가 보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개발한 생물다양성 리스크 필터(Biodiversity Risk Filter, BRF), 팜유바이어스코어카드(Palm Oil Buyers Scorecard, POBS), 지속가능한금융평가(Sustainable Banking Assessment, SUSBA) 등 다양한 지표와 툴을 이용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과학기반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WWF-Korea에서도 비즈니스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설립 10주년을 앞두고 WWF-Korea는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최근 유럽연합에서 산림 벌채와 관련한 수출입 규정을 승인했고, 지난해 수립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에 따른 규제와 유엔 플라스틱 조약의 실행을 앞두고 환경 관련 규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새로운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 글로벌 시장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WWF-Korea가 돕겠습니다.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 Wild Wonders of Europe / Peter Cairns / WWF

WWF와 기업의 협력

WWF는 자연과 지구의 자원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들을 줄이기 위해 영향력 있는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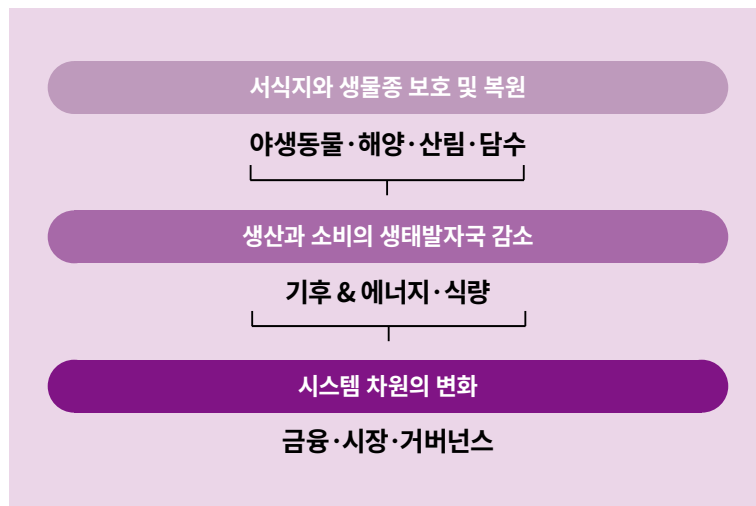
기업은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경제적인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과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해야 한다. 기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지금, 이에 선도적으로 적응하는 기업이 미래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WWF는 이들과 함께 산림 파괴와 수산물 남획, 물 부족, 기후위기 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WWF는 기업과 협력하여 그들의 비즈니스를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고 단독으로는 어려웠던 자연보전 활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과의 협력은 기업의 특정 관심사나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에 맞춰 진행되며, 내부 임직원 교육이나 대중 인식 제고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WWF는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산림, 해양, 담수, 야생동물, 식량, 기후 및 에너지 등 6가지의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 변화의 3대 핵심 원동력인 시장, 금융 및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해 나가고 있다.

WWF가 자연과 인간을 위해 일하는 방법
HOW WWF WORKS FOR NATURE AND PEOPLE



WWF와 기업의 파트너십 형태

WWF의 보전 목표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는 기업,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는 기업, 자연 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여 파트너십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아울러 WWF에서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기업, 또는 환경 영향이 적은 산업군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부 및 인식제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WWF와 기업의 파트너십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 가능하다.

1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의 전환

WWF는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 공유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운영 방식의 전환을 유도한다.

2 커뮤니케이션 협력을 통한 인식 제고

WWF는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의 행동에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자연보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3 후원을 통한 자연보전 기여

WWF는 기업의 후원을 통해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행동 등과 관련된 자연 보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 소개

WWF는 파트너십을 통해 최대한의 자연 보전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WWF와 이해관계자 간의 투명한 파트너십이 핵심적이며 WWF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토대로 모든 파트너와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WWF의 모든 글로벌 네트워크는 각 파트너십의 동기와 목표, 활동 내용,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WWF-Korea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기업과 기관, 단체 등과 추진한 파트너십 내용을 요약하였다.

파트너십 기업과의 계약체결과 활동은 WWF-Korea에서 담당하며 WWF가 기업 파트너십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2023 회계연도(2022년 7월 - 2023년 6월)를 기준으로 WWF-Korea의 전체 후원금 중 비즈니스로부터 얻은 총 후원금의 비중은 31%이다.



© Martina Lippuner / WWF-Africa



파트너십
PARTNERSHIPS

© Simon de TREY-WHITE / WWF-UK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137년의 역사를 가진 글로벌 종합 음료 회사로 전 세계 200여 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으며 탄산, 스포츠음료, 먹는샘물, 주스, 차, 커피 등 총 200여 개 이상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업종	음료 제조업
파트너십 형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전환, 자연보전 활동, 커뮤니케이션 인식제고
보전 분야	담수/플라스틱
후원금액(범위)	500,000,000 ~ 1,000,000,000원



코카-콜라는 WWF의 오랜 파트너로 환경보호, 여성 리더십, 지역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코카-콜라의 비즈니스에 어울리는 방식으로 전 세계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자원 복원 프로그램인 물환원 프로젝트(Water Replenishment Project)를 통해 전세계 수자원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회복 가능한 담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2017년부터 WWF-Korea와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 낙동강 유역원의 물 부족 지역에서 저수지 준설, 수생식물 식재, 수로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물환원 프로젝트(Water Replenishment Project)는 코카-콜라 제품에 들어가는 물과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물의 총량을 각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환원하는 프로젝트이다. 2023년에는 경상남도 고성과 김해에서 각각 성전소류지와 명동저수지의 준설을 통해 농업용수를 확보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였다. 특히 올해는 추가로 2030 Water Security Strategy에 맞춰 코카-콜라 사업장이 있는 여주 지역의 물 환원을 위하여 숲가꾸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숲가꾸기 프로젝트를 통해 지하수의 수위 함량을 증대시키고 토사 유출 방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었다.

또한, 코카-콜라는 지속가능한 패키지(World Without Waste)를 통해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음료 패키지를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교체하고, 최소 50%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2020년부터 원더플(ONETHEPL)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원더플 캠페인은 소비자들에게 사용 후 버려지는 투명음료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리므로써 투명 음료 페트병이 재활용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돕는 소비자 동참형 캠페인이다. 2023년 6월 시작된 원더플 캠페인 시즌 4는 코카-콜라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시한 재생페트(r-PET) 제품을 리워드 제공하며, 모든 음료 페트병을 식품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생페트 원료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참가자들이 보틀투보틀 순환경제에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씨티은행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금융회사인 Citi는 1967년 한국에서 영업을 처음 시작하였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위한 최고의 은행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종	금융업
파트너십 형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 /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제고
보전 분야	기후 & 에너지
후원금액(범위)	100,000,000 ~ 500,000,000원



WWF와 한국씨티은행(씨티재단)은 2018년부터 시작된 ‘내일을 위한 변화(Change Now for Tomorrow)’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한국의 기후행동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산업계, 학계, 대중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한국의 저탄소 경제 실현과 탄소중립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행동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씨티은행과 WWF는 올해 초 국제기구, 학계, 산업계, 중앙부처 등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이중위기(Twin Crisis -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기후행동 컨퍼런스(Climate Action Conference)’를 개최하고 제8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Climate Action Roundtable)’을 통해 SBTi 참여 및 재생에너지 조달 관련 국내외 최신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청년 대상 기후행동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방안들을 모색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했다.

WWF는 한국씨티은행과 함께 국내 기후변화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과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라네즈

라네즈는 지속가능 캠페인 ‘HUG(HUG for Universal Goodness)’를 통해 글로벌 다양한 고객의 아름다움을 포용하며, 우리의 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LANEIGE

업종	화장품 제조업
파트너십 형태	자연보전 활동
보전 분야	플라스틱
후원금액(범위)	100,000,000 ~ 500,000,000원



WWF와 라네즈는 해양보전 파트너십을 맺고 라네즈의 지속가능 캠페인 HUG(Hug for Universal Goodness)의 일환으로 태안해안쓰레기 수거사업과 반려해변 임직원 봉사활동을 함께 하였다.

태안해안국립공원과 협력을 통해 해안쓰레기 수거활동을 지원하여 2022년 한 해동안 235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WWF와 라네즈의 반려해변*인 청포대 해변에서 지난 10월과 5월, 2회의 임직원 해안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약 5톤의 쓰레기를 수거해 해양생태계 보전에 일조하였다.

WWF와 라네즈는 태안 해안쓰레기 수거와 반려해변 봉사활동을 통해 해양보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올해에는 WWF와 라네즈의 파트너십이 한국, 중국, 태국 3개국으로 확장되어 중국에서는 지속가능한 해양 프로젝트에 쓰이는 ‘블루 플래닛 펀드’ 후원과 임직원 플로깅 활동을, 태국에서는 타이만과 안다만 일대 10개의 지역사회, 학교를 중심으로 해양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수립하고 연간 90톤의 해안 쓰레기 수거를 목표로 인식 제고 및 수거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반려해변이란 해변을 입양하여 아끼고 돌보는 제도로 189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발한 해변입양 프로그램을 벤치 마킹하여 국내에 맞게 재해석하였다. 국내에서는 2020년 9월 제주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는 중이다.

한솔섬유

1992년에 창립된 한솔섬유는 한국 섬유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녹색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업종	의류 제조업
파트너십 형태	자연보전 활동
보전 분야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금액(범위)	50,000,000 ~ 100,000,000원



(© Bun Sothea / MoE / WWF-Cambodia)

한솔섬유와 WWF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의 멸종위기종 보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WWF-Cambodia에서 2019년에 발굴된 해당 사업은 세레포크(Srepok) 강의 삼(Siamese) 악어 서식지와 생태계를 보호함으로써 개체 수를 강화하고 메콩강 유역의 자연 보전과 기후변화 적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한솔섬유는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협력 강화,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생태계 보호 등 메콩강 유역의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에 동참한다.

또한, 한솔섬유는 2023년 3월 25일 WWF에서 주최한 Earth Hour 캠페인에 동참하여 사옥 소등 행사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생물다양성 손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한솔섬유는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산림보전 활동, 폐기물 감축 등 여러 기후변화 적응 사업을 통해 다양한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데상트코리아

데상트코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스포츠하는 즐거움을 주는 기업’을
 모토로 새로운 스포츠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현재 스포츠와 골프 브랜드들을 전개하며 세상과 함께 숨 쉬는 따뜻한 기업을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업종	패션
파트너십 형태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제고
보전 분야	생물다양성
후원금액(범위)	100,000,000 ~ 500,000,000원



데상트와 WWF는 4월 28일부터 6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 세이브더펭귄 SAVE THE PENGUIN 임직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세이브더펭귄 SAVE THE PENGUIN 캠페인은 데상트코리아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캠페인이며, 스포츠 패션 기업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스포츠로 우리의 일상과 환경을 보호하자’는 메시지와 구체적인 액션을 전달하려는 취지다.

이번 캠페인에 참가한 약 15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을 진행하여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임직원 자원봉사 활동은 도심 내 생태공간인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을 찾아 수달 서식지 보전을 위한 목책을 만들어 설치하고 찔레꽃을 옮겨심어 생태울타리를 조성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생태계를 교란하는 가시박, 환삼덩굴 등의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쓰러진 나무와 잔가지를 모아 소동물과 곤충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비오톱 만들기 활동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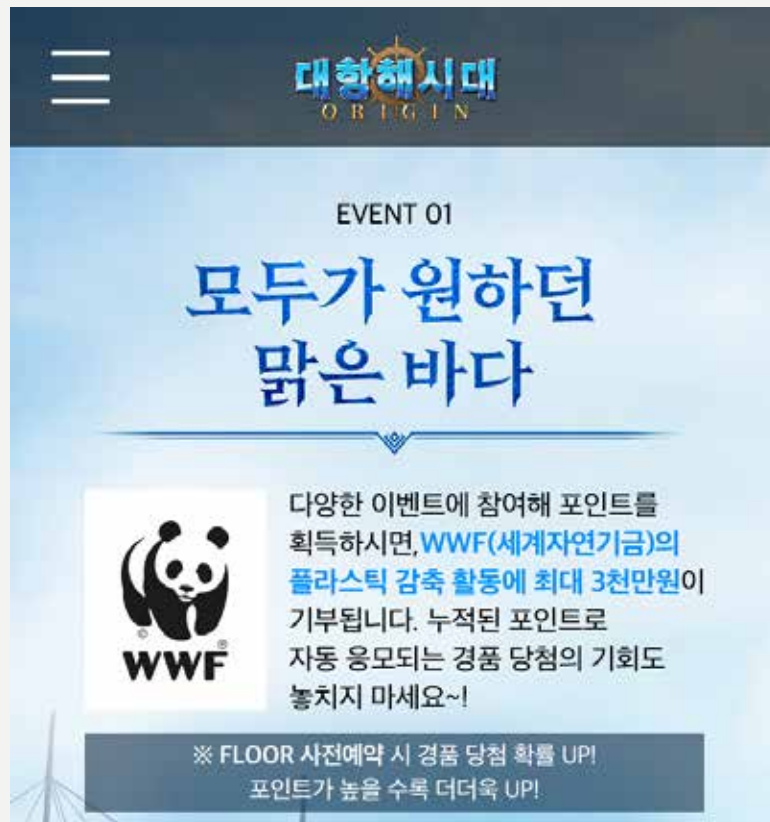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는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보전’ 교육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실태와 피해, 해양보전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알아본 뒤 몽산포에서 달산포에 이르는 지역의 해안 쓰레기 수거 활동을 통해 약 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에 도 일조하였다.

라인게임즈

라인게임즈 주식회사는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라인(LINE)의 관계사로, 게임 개발 및 유통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드래곤 플라이트’를 시작으로 ‘언디셈버’, ‘대항해시대 오리진’ 등 다양한 히트작을 출시하여 이용자에게 재미있는 세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LINE GAMES

업종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파트너십 형태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제고
보전 분야	플라스틱
후원금액(범위)	10,000,000 ~ 50,000,000원



라인게임즈는 2022년 8월 서비스하는 오픈월드 MMORPG ‘대항해시대 오리진’에서 사전 예약 기간 동안 모금한 기부금을 WWF에 전달하여 플라스틱 감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부금은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진행된 ‘대항해시대 오리진’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이용자가 함께 모금하였으며 큰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목표 금액이 조기 달성되었다.

라인게임즈가 전달한 기부금은 WWF 플라스틱 프로그램인 imPACT 펀드에 활용되어 해양 플라스틱 수거 사업, 플라스틱 인식제고 등 다양한 플라스틱 감축 활동에 기여하였다.

GENIE TV 키즈랜드

KT의 영유아동 전용 IPTV인 키즈랜드는 8만여 편의 풍부한 키즈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키즈랜드 자연백과’, ‘스콜라стик 기초영어’, ‘감정표현동화’ 등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와 리틀엔젤, 베베핀, 도레미 프렌즈, 리틀팍스 등 차별화된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업종	통신 및 미디어 서비스
파트너십 형태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제고
보전 분야	생물다양성 보전
후원금액(범위)	10,000,000 ~ 50,000,000원



‘키즈랜드 자연백과’는 키즈랜드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BBC 다큐멘터리와 뽀로로 캐릭터를 결합하여 만든 다큐 애니메이션이다. 자연백과 시즌3에서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들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세계동물지킴이’ 캠페인을 통해 약 두 달여 간의 기간 동안 ‘키즈랜드 자연백과’를 시청할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었다.

또한, ‘세계동물지킴이’ 대원이 되기 위해 입단 신청서를 작성한 아이들에게 대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우수대원을 뽑아 WWF 멸종동물 열쇠고리를 선물하여 아이들에게 멸종위기동물 보호의 의미에 대해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다양한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리스크자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회계·컨설팅 펌이며,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라는 지향점 아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여 우리 사회에 긍정의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다.

Deloitte.

업종	서비스업
파트너십 형태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제고
보전 분야	생물다양성 보전
후원금액(범위)	10,000,000 ~ 50,000,000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World Impact의 일환으로 WWF와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 및 기여를 목적으로 여의도샛강생태공원을 찾아 임직원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습지 조성 및 모내기 활동을 통해 생물자원의 안정적인 서식 환경 조성 및 도심 내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이번 활동의 결과물은 향후 샛강생태공원을 찾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올해 하반기에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WWF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은하수산

은하수산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더 건강한 수산물과 깨끗한 바다를 미래세대에 이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업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도매업
파트너십 형태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제고
보전 분야	지속가능한 수산
후원금액(범위)	10,000,000 ~ 50,000,000원



WWF와 은하수산은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파트너십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2021년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 확대와 친환경 연근해 어업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한 바 있다.

은하수산은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지속가능 수산물 인증제인 MSC*, ASC**등의 적용 확산으로 국내 수산 유통업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인증 수산물로 전환하기 위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사 ASC 인증 제품의 수익금 일부를 WWF 자연보전 활동에 활용하도록 기부했다.

앞으로도 WWF와 은하수산은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과 인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속가능한 수산물 확대가 자연보전에 미치는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수산물 시장 확대 및 어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 인증제도
 **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수산양식관리협의회 인증제도

KAPP

KAPP는 Korean Association of Paddlesurf Professionals (사단법인 대한 패들서프 프로협회)의 줄임말로, 한국에서 APP 월드 투어를 최초로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패들서프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된 사단 법인이다.



업종	사단법인
파트너십 형태	커뮤니케이션 및 인식 제고
보전 분야	플라스틱
후원금액(범위)	10,000,000 ~ 50,000,000원



WWF는 KAPP와의 협력을 통해 2022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광안리 SUPrise 해변에서 체험부스를 진행하였다. 이는 패들서프프로협회(APP, Association of Paddlesurf Professionals) 월드 투어의 한국 대회인 부산 SUP(Stand Up Paddle Board) 오픈과 함께 진행된 것으로 플라스틱 오염과 해양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WWF 체험부스에서는 방문객들이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해양동물의 입장이 되어, 해양동물을 괴롭히는 페그물과 페트병, 비닐봉지 등을 정해진 시간안에 통과하는 미션에 성공하면 'Say No To Plastic', 'Save the Ocean'의 메시지를 담은 스티커 타투를 새겨주며 해양보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체험에 사용된 그물은 바다에서 수거한 페그물을 포어시스(Foresys)에서 깨끗하게 세척하여 제공받은 그물로 그 의미를 더하였다. 또한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해양동물의 사진전시를 통해 광안리 해변 방문객들에게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플라스틱과 해양오염에 대한 이야기도 직접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3일간 약 300명이 WWF 부스를 방문하여 미션을 수행하며 해양보전 의지를 함께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SUSTAINABL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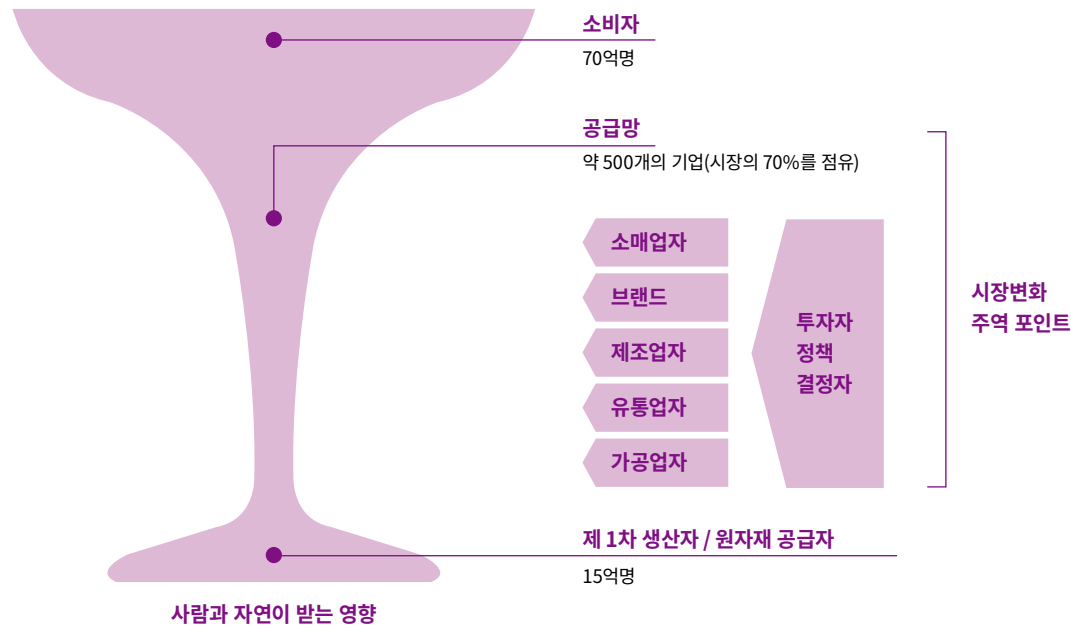
© Elisabeth Kruger / WWF-US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SUSTAINABLE PROGRAM)

인류는 현재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자원 사용 속도보다 1.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자원을 소비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지구를 유지하는데 위협적인 수치이며, 인류와 자연 또한 안전하지 않다. 때문에 인구 증가에 맞추어 물, 식량, 연료 등의 원자재 수요를 관리하고 식수 보존, 기후 안정을 위한 활동 등을 통하여 자연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WWF는 자연보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생산과 소비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줄이고 인간과 자연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시스템 변화에 집중한다. WWF는 기업과 협력하면서 환경에 대한 산업계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며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연보전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시장과 비즈니스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산업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WWF-Korea에서는 기초 조사 연구, 라운드테이블 개최, 기업 협력 이니셔티브 운영 등 다자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이니셔티브와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시장과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Staffan Widstrand / WWF

플라스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는 보고되어 왔으나, 비즈니스 측면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WWF에서는 ‘No Plastics in Nature by 2030’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의 환경 유입을 막고 생태계 오염을 멈추고자 한다.

PACT 기업 공동 선언

PACT(Plastic ACTion)는 세계적 이슈로 떠오른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비전으로 WWF가 전 세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기업 공동의 다자간 선언이다. 기업들의 공동 참여를 통해 제품 생산 단계부터 디자인과 포장재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중장기적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PACT는 지난 2019년 WWF-Singapore에서 출범되어 에비앙, 하얏트, 힐튼 등 다양한 업계의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고, 1,200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과 포장재 감축을 이끌어 내 긍정적인 자원 순환 경제 실현에 기여해왔다.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에 이어 2021년에는 한국에서도 처음으로 PACT 선언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2021년 4월 PACT 선언식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첫 번째 성과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2023년 6월 3번째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플라스틱 자원순환 전략과 국제 플라스틱 협약 등 플라스틱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의 PACT 가입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 의지를 다지고 각자 설정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범분야별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다. 2021년에는 매일유업, 산수음료, 씨에이치코스메틱, 아모레퍼시픽, 올가니카, 우리카드, 우아한형제들, 그랜드워커힐이 가입했으며, 2022년에는 LG 생활건강, 코오롱 LSI·MOD, SK 매직이 가입했다. 2023년에는 엑스와이지와 풀무원이 새롭게 가입하였다. PACT 기업들의 연간 감축 노력을 담은 성과보고서는 2023년 하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제3회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 진행

2023년 6월 9일, PACT 기업들을 초청하여 ‘제3차 플라스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총 10여 개 기업에서 20여 명의 국내 기업 실무진이 참여하였으며,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 그리고 관련한 연구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환경부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 동향과 함께 환경부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소개하며, 정부간협상위원회(INC) 2차 회의에서 논의된 공동 목표 설정 및 규제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고, 2025년까지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는 환경부의 목표도 공유했다. 이후 WWF-US는 Resource 플랫폼을 소개하며, 글로벌 대기업의 플라스틱 감축 노력을 발표하고 스타벅스의 플라스틱 빨대 퇴출 사례, 코카콜라의 유색 플라스틱 페트병 교체 사례 등을 들며 선두 기업들의 적극적인 플라스틱 감축 사례에 대해 공유했다. 이어 WWF-Korea는 2021년 발족한 기업 공동의 플라스틱 감축 선언인 PACT의 첫 성과와 함께 INC에 대비하기 위한 고위험 플라스틱 제품 분류를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박주영 교수가 플라스틱 물질 흐름과 순환경제 전략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플라스틱의 자원순환을 위해서는 재생 플라스틱의 사용을 100%로 높이고 신재 플라스틱 수요에 대한 저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PACT 가입 기업들은 서로의 플라스틱 감축 현황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WWF는 기업들의 플라스틱 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여 업계 간의 범분야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물질흐름 시뮬레이션 연구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줄이는 방안으로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사용 과정, 그리고 재활용 시스템의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WWF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정책과 활동 수립 시에 활용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이 생산, 폐기, 재활용되는 단계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보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국내의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에 대한 데이터는 비공개이거나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글로벌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었다. 플라스틱 소재, 지역, 기간, 적용 분야 별로 총 9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여 생산과 폐기, 수집 등의 과정이 재활용에 미치는 중요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재활용 경향과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때, 플라스틱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사용 되는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히 PET의 경우는 수거량의 65% 정도가 생산량 및 사용 기간과 거의 무관하게 재활용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데이터의 품질 또는 누락, 다양성 부족의 한계로 인해 앞으로 플라스틱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 침적쓰레기 수거 성과

WWF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인근 해역(정방폭포, 쇠소깍, 성산)에서 침적쓰레기 약 11톤을 수거했다. 2022년 4월부터 제주도청, 서귀포시 등 관련 기

관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기본 조사 및 수거 설계를 실시하였다. 제주도 서귀포시 해역은 천연보호구역을 포함하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 보호를 위해 인양를 대신 전문 잠수 인력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 수거를 진행했다.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페어망 등의 폐기물 수거를 진행하고 처리하며 이를 통해 유령어업과 미세플라스틱을 예방하고 제주도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였다.

통영 주민자율관리사업 추진

WWF는 국립공원공단과 2021년부터 해양 플라스틱 수거를 목적으로 협력해오며, 지난 2월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사업을 넓혀가기로 했다. 이번 체결을 계기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주민자율관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지역은 국립공원의 관리 지역으로 이번 WWF와의 협력을 통해 그동안 수거되지 못했던 해양쓰레기가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함께 더 많이 수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지는 원거리 도서 취약지역이 많은 한려해상, 다도해 해상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사업지 중 하나인 통영 연대도의 경우 주민 인구는 약 70명에 불과하지만 그곳에 모이는 해양쓰레기는 매년 대략 20톤으로 추정되며, 주변 양식장 등에서 흘러들어오는 폐그물과 어망들도 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WWF는 이번 협력을 통하여 이미 버려진 해양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해양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인식제고 캠페인 활동 등을 연계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외교부 그린라운드테이블 발표

2022년 12월 8일 외교부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및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주제로 제 9차 그린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그린라운드테이블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간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토론회이다.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일본 환경성 차관, GGGI 사무총장, 녹색기술센터 소장 등 국내외 정부, 학계, 국제기구 인사들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발제 및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WWF-International의 Global Plastics Policy Lead인 Eirik Lindebjerg가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WWF가 제안하는 국제 협약의 세부 구성 내용*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 제 5차 유엔환경총회의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맞춰 순환경제와 관련된 국내의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순환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도전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국제 사회 차원에서 협상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동향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업계, 시민사회가 모두 함께 조속히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WWF는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협상하며 모두에게 공정하고 의미 있는 협약이 구성되도록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전 세계적으로 신속하고 규모 있는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어구, 미세플라스틱을 우선순위로 생산 감축해야 한다. 2개의 보고서에 걸쳐서 플라스틱의 정의 및 사용에 대한 표준을 정립하고, 단계별로 플라스틱을 감축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정리했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국회토론회 발표

WWF는 2023년 3월에 열린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여하여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제 플라스틱 협약 등 글로벌 기준이 반영된 국내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과 소비자기후행동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WWF 이외에도 42개의 학계, 산업계, 기관, 시민단체 등 250여 명이 참석하여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WWF는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결국 기업의 비즈니스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산업계와의 협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4년까지 논의될 국제 플라스틱 협약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지켜보면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에 적용하는 것이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미세플라스틱 대응 해외 입법 동향과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주요 내용도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다.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초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선례로 참고하여 국가, 사업자, 국민의 책무 등을 조항으로 규정했다.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 기준과 허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어긋나는 제품은 제조·판매·사용 등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팜유

지구상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식물성 기름인 팜유(야자유)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기후 회복력 확보에 중요한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지형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86%가 재배되고 있으며 경제성과 효율성, 범용성 등의 이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WWF는 무분별한 삼림벌채와 생태계 전환, 인권훼손 없는 지속가능한 팜유 시장 전환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팜유 워크숍 개최

WWF-Korea는 5월 11일 지속가능한 팜유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속 가능한 팜유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팜유 관련 구매, ESG 및 CSR 기업 관계자 50여 명 등이 워크숍에 참석하여 팜유 RSPO 인증 동향 및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팜유 농장은 대부분 생물다양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며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 벌채, 토지 개간, 수질 오염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어 관련 기업의 역할이 조명되고 있다. WWF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EU 산림 황폐화법이 통과되고,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의 산림자원 사용의 추적성 등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인증받은 팜유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김관수 교수가 한국 팜유 시장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고 이규호 컨트롤유니온 코리아 심사원이 구체적인 RSPO 인증 현황과 절차를 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하였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RSPO 중국 법인 총괄 Fang Lifeng이 연사로 참석하여 현재 한국의 RSPO 멤버는 100개 사가 넘고 인증에 대한 수요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서 실제 인증팜유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 같은 수입국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전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WWF는 팜유 바이어사들이 RSPO 인증을 넘어서 인증 팜유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팜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팜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형성을 통해 생물다양성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말레이시아 사바 트립

WWF-Korea는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의 현황과 RSPO 인증 농장의 사업 운영 방식을 보기 위해 말레이시아 타와우 팜유 농장을 다녀왔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팜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도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WWF-Malaysia와 협력하여 팜유 바이어인 국내 대기업의 구매 및 ESG 관계자와 함께 RSPO 농장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말레이시아는 팜유 생산 세계 2위 국가로 전 세계 팜유 생산의 약 24%를 차지하며 그중 사바(Sabah)주는 말레이시아 팜유 생산의 약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바주 남동쪽의 타와우는 팜유 산업으로 유명한 지역이며, 팜유 농장이 이 지역 전역에 널리 퍼져 있고 지역 경제가 팜유 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WWF-Malaysia는 팜유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 자연보호(Protect) 2) 지속가능한 생산자원(Produce) 3) 생물다양성 복원(Restore)을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사바 지역 정부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다.

방문단은 SSB(Sabah Softwoods Bhd)와 SKSB(Sawit Kinabalu Sdn Bhd) 두 농장을 방문하여 농장의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 방식에 대해 직접 체험했다. SSB는 생물다양성을 위해 WWF와 함께 야생동물 보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사람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 야생동물을 대하는 행동과 요령 교육 등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특히 보호구역 안에는 코끼리, 오랑우탄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어 서식지 복원을 위한 묘목 심기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SKSB는 운반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내 운반용 전기 차량을 도입하였고, 부산물을 목축업에 활용하고 있다. 소의 배설물을 퇴비로 활용하고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사료로 재가공하여 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이 외에도 대부분의 직원이 인도네시아 출신인 것을 고려하여 농장 옆 학교에서 인도네시아 정규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팜유 생산 지역에서의 자연 보전은 경제 개발과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RSPO 인증은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첫 단계로 WWF에서는 팜유의 지속가능성과 RSPO 인증 확대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자선기부를 통한 자연보전 기여 PHILANTHROPY

WWF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세계 100여개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3,500만명 이상의 서포터즈와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환경 오염 및 낭비를 줄이고자 인식증진 활동과 교육에 힘쓰고 있다.



© naturepl.com / Adrian Davies / WWF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WWF는 과학 기반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안하며,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WWF의 비전과 목표에 뜻을 보태고자 WWF의 프로젝트와 활동에 후원을 한다. 해당 기업의 사업 방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젝트 또는 기업과 임직원들이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이슈에 기부가 가능하며, WWF는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젝트에 활용하고 있다.

2023 회계연도에는 **올가니카, GS건설, 영원무역, 카카오메이커스,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케이카, 베네데프, CH 코스메틱스, 레이첼블루, 카카오페이, 송이송이, 글로벌스탠다드테크놀로지, 신주원디앤지**에서 WWF 자연보전 활동을 위해 기여하였다.



파트너십 기타 활동

‘한국 지속가능양식수산물 세미나’에서 사례 공유

2023년 5월 28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 1회 한국 지속가능 양식수산물 세미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유통을 위한 WWF 파트너십 사례를 소개했다.

WWF는 앞으로 ASC 인증뿐만 아니라 목재, 팜오일 등 다양한 분야의 인증을 확대하며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힘을 계획이다.

국제 해조류 심포지엄에서 ‘해조류 연구 및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패널 토의

WWF-US와 WWF-UK에서는 해조류 산업육성에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해조류 양식 벤치마킹을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의 관련 업계 종사자 약 20여명이 안도를 방문하여 한국의 양식장과 가공 현장을 견학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2022 프리뷰인서울 친환경 섬유인증 소개 및 트렌드 세미나에서 발표

WWF는 2022년 8월 25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프리뷰인서울의 “친환경 섬유 인증 소개 및 트렌드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하여 섬유패션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ESG 트렌드로 수자원 관리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물 영향 지수가 높은 섬유패션 산업계에서의 지속가능한 물 공급망 관리 방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섬유 기업들에게 물관리 실행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Water Risk Filter를

활용한 수자원 리스크 식별 및 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WWF는 담수 전략(Freshwater Strategy) 개발 중에 있으며, 곧 섬유패션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계와 이해관계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IUCN 리더스포럼 참석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의 진행

지난 2022년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된 IUCN 리더스포럼에 WWF가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제주도, 환경부,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주최로 열린 본 포럼에 69개 국가의 정부·기구·단체·기업 등에서 500여 명의 인사가 참여하여 ‘Nature-positive(자연의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회복의 길로 전환하는 범 지구적 자연 회복 목표)’에 대한 주제로 논의되었으며 생물다양성 파괴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WWF-International 마르코 람베르티니 사무총장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시급하게 움직여야 하며 생물다양성을 수치화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2030년까지의 달성 기한을 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SG 포럼에서 생물다양성 손실 회복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한 메시지 전달

WWF는 지난 11월 환경부에서 주최한 ESG 포럼에서 '기후위기를 넘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지속가능한 상품과 유통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SG 포럼에서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비즈니스 리스크와 솔루션을 찾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며 우리가 당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의 이중적 위기에서 발생한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네이처 포지티브(Nature Positive)'의 개념도 함께 소개했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 방식, 기술의 사용 및 경제·금융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당면한 리스크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한, 환경대전에서 개최된 유통 세미나에서는 WWF와 이마트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상품 이니셔티브(PSI, Product Sustainability Initiative)' 소개와 함께 WWF와 글로벌 유통사의 협력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이미 글로벌 유통사들은 지속가능한 유통을 위해 공급망, 관리 시스템, 소비자 교육 및 행동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상품과 유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어 WWF는 국내 유통업계 기업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 지속가능한 윤리적 패션의 두번째 웨비나 'Vegan Fashion의 갈래'에서 발표

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KEFN)에서 2022년 11월 22일에 주최한 윤리적 패션 대담의 두번째 웨비나

인 "비건 패션의 갈래"에 WWF가 연사로 참여하여 비건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비건 패션의 순기능에서 시작하여 과연 이러한 트렌드가 환경에도 긍정적 효과만을 내는지에 대하여 반문하며 비건 패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WWF 박민혜 국장은 비건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이면과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인식있는 패션 지향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인증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하였다.

현재 WWF는 패션·섬유 업계에서의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산업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기업의 담수 관리(Water Stewardship)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패션 세미나 개최

2023년 5월 12일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와 WWF는 '패션 사업의 순환경제'를 주제로 연세대학교에서 지속가능패션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80여명의 생활과학대학 재학생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준비된 발제와 패널토론을 통해 패션의 디자인부터 생산, 소비, 폐기까지 전 공급망에 걸쳐 순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고 패션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제고하였다.

WWF는 앞으로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구와 지원을 이어가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힘을 계획이다.



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 진행

WWF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정의와 생물다양성 손실로 인한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에 대해 '기후위기를 넘어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영원무역, 카카오페이, 한진 등 다양한 기업 임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참여한 임직원들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심각성과 국내외 정책 변화에 대해 배우며 기업과 개인이 일상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WWF는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과 방법 그리고 기후와 생물다양성 두 가지 측면에서 이중으로 벌어지는 전 지구적 비상상황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

WWF는 이러한 임직원 교육을 통해 기업과 개인 차원에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경제주체인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비즈니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또한 개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실천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노력 발표

플라스틱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이 8월 4일, 5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렸다. 제주도와 환경부, 유네스코(UNESCO)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 WWF-Korea의 홍윤희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국내·외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을 위한 WWF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WWF의 No Plastic in Nature 2030 전략 소개와 함께 이를 위해서 신재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면서 플라스틱이 자연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지구가 하나라는 시각을 가지고 필요 이상의 자원을 쓰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생산과 현명한 소비, 공정한 자원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트너사 인터뷰

러닝포인트



1. 러닝포인트 기업 소개 부탁드립니다.

러닝포인트는 마라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외 마라톤 정보 및 참여 결제가 가능한 마라톤 특화 플랫폼입니다. 특히 '애니멀런', '땡땡이레이스', 'B급마라톤'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대표적인 마라톤대회입니다. 그중 저희는 '애니멀런' 대회를 통해 참가비의 일정 금액을 WWF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애니멀런 대회는 멸종위기 동물을 테마로 하여 매월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12월 순록 런을 시작으로 2023년 8월 현재 퀴카런까지 총 33회 진행하고 있는 저희 러닝포인트의 대표적인 기부 마라톤 대회입니다.

또한, 브랜드와 협업하여 진행하는 B급마라톤 대회를 통해 친환경과 기부 관련 대회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1년 WWF와 함께한 '어스아워런'과 2022년 '플로킹런'(플로깅+하이킹)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튜나런', '참신한홍런' 등 대회들을 통해 녹색소비자연대, 유소년야구단에 각각 기부하는 기부런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마라톤 대회들을 통해 멸종위기 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와 자연 파괴의 심각성 알리기, 해양환경 파괴 최소화, 미래세대 스포츠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러닝포인트는 러닝(마라톤)을 통해 건강관리와 함께 기부까지 할 수 있는 러닝문화를 확산시키는데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 대회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 WWF를 후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평소에도 마라톤 대회를 통해 기부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대학생 때 6박7일 동안 250km를 완주하는 극지 마라톤대회 완주를 통해 아프리카에 우물을 만들어 주는 지원활동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4대 극지마라톤 대회 완주라는 개인적인 목표 달성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동참을 불러일으켜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같이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좋아하는 마라톤대회를 직접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기부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귀여운 동물메달을 통해 2030세대들에게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애니멀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참가자분들이 저희 '애니멀런' 대회에 동참을 해주셨고 동물보호에서 나아가 전세계 자연환경 보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WWF에 기부해야겠다 마음먹고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3. WWF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러닝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협력해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기부를 한다면 소수가 혜택을 보겠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운동과 기부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게 된다면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부문화를 소개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장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는 없겠지만 정서적인 변화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데상트코리아

1. 현재 데상트에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통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팀입니다. 데상트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하고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데상트코리아의 환경 캠페인 'SAVE THE PENGUIN(세이브더펙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이브더펙귄은 데상트코리아의 환경 캠페인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포츠 패션 기업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스포츠로 우리의 일상과 환경을 보호하자'는 메시지와 구체적인 액션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2. WWF와 일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점, 좋았던 점 등 같이 일했던 경험은 어떠셨나요?

환경 문제와 보호 액션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환경 기구라고 생각했고, 협업을 하면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브랜드 구성원들이 어떤 환경 보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액션을 제안해 주셨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함께 구성, 운영해주었습니다. 환경캠페인 담당자로서 든든한 협력 업체이자 신뢰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도 WWF와 협력하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

2023년에 세이브더펙귄과 함께 하였던 생물다양성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주제를 모색하고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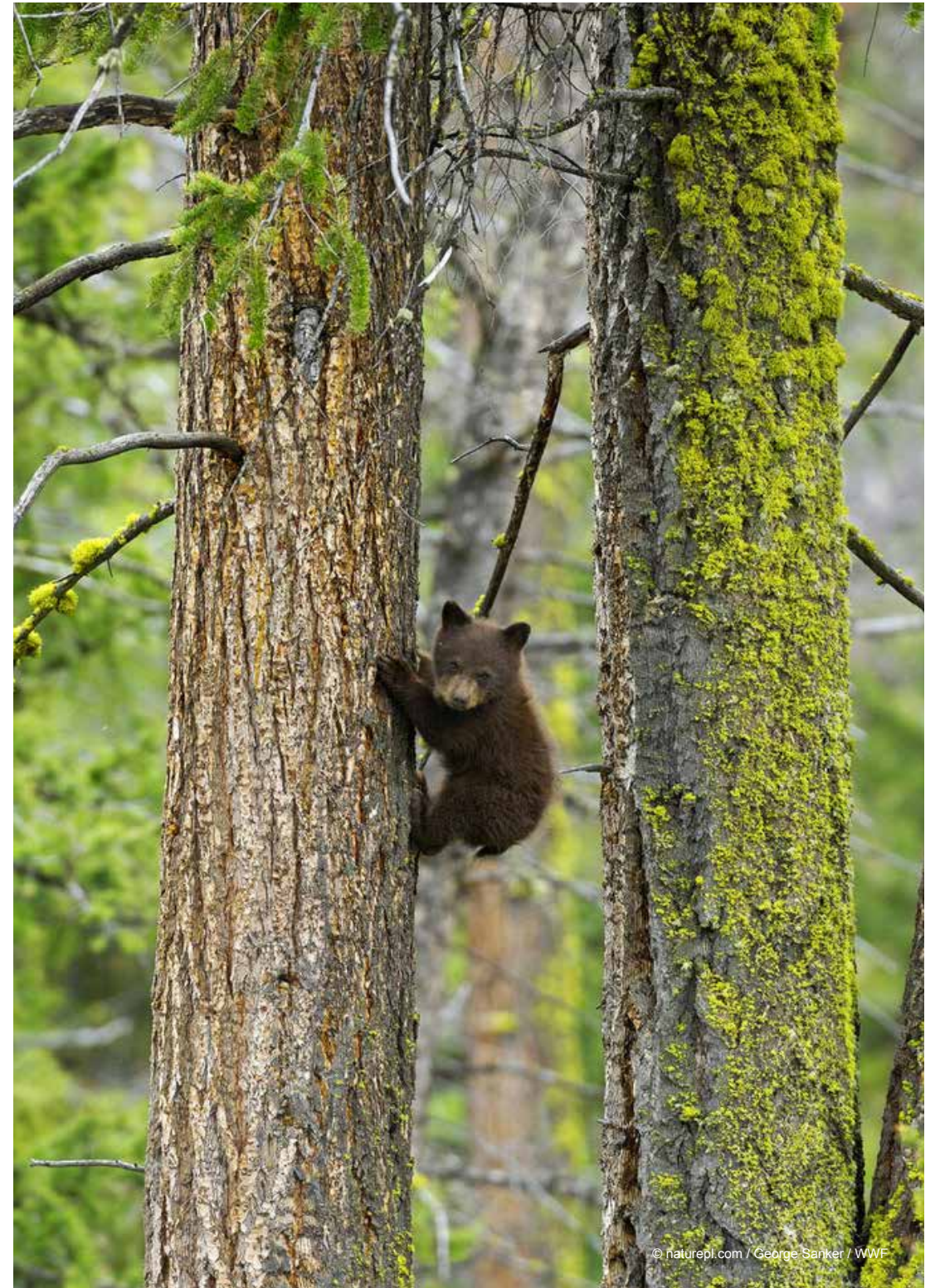


WWF 글로벌 네트워크

가봉	영국
가이아나	오스트리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스	우간다
나미비아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인도
네팔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일본
뉴질랜드	잠비아
대한민국	조지아
덴마크	중국
독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짐바브웨
러시아	칠레
루마니아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	케냐
모로코	콜롬비아
모잠비크	콩고민주공화국
몽골	쿠바
미국	크로아티아
미얀마	탄자니아
베트남	태국
벨기에	튀르키예
벨리즈	튀니지
볼리비아	파나마
부탄	파라과이
불가리아	파키스탄
브라질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페루
수리남	포르투갈
스웨덴	폴란드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령기아나
슬로바키아	피지
싱가포르	핀란드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아르메니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	호주
에콰도르	홍콩

WWF 제휴기관

Fundación Vida Silvestre (아르헨티나)
 Pasaules Dabas Fonds (라트비아)
 Nigerian Conservation Foundation (나이지리아)



OUR MISSION IS TO STOP
DEGRADATION OF THE
PLANET'S NATURAL
ENVIRONMENT AND TO
BUILD A FUTURE IN WHICH
HUMANS LIVE IN HARMONY
WITH NATURE.

© naturepl.com / Anup Shah / WWF



WWF(세계자연기금)는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together possible. wwfkorea.or.kr

© 2023

© 1986 판다 도형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